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1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3호에 따라서 부승찬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해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된 출석자들 오늘 정부 측에 통보를 하고 내일 10시에 국방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중차대한 일에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경우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상임위를 계속 열 생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내일 회의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요청합니다.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빠짐없이 출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에게 시민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제가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내일 정말 시간의 제한이 없이 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 대한 정부 측 관계자 그리고 여야가 주장하는 관계인, 증인들을 다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가 급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수괴라는 점은 이미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가 이뤄지고 그리해서 진상규명이 철저히 밝혀지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까지 가야지만이 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내란 사건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그 의지는 진상규명 차원에서는 일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찰이 현재 이

내란죄의 사건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 특수본에서 시행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것이 과연된 군검찰에 의한 압수수색인지 아니면 독단적인 민간 검찰 특수본인지 분명히 문제를 짚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물풍선 사격과 관련해서 한 인터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령관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 실무팀이 계엄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이창엽 방첩사령관 비서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차관께 엄중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군검찰은 즉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포함한 방첩사 개별 혐의 위 인물들 및 관련 시설, 방실, 컴퓨터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간사님.

○허영 위원 자료 요구를 좀……

○위원장 성일종 아니, 잠깐만요.

부승찬 간사님, 강대식 간사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내일 회의할 때 인원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협의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를 국회가 자주 매일 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일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또 각각의 위원님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질의하실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허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전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계엄 해제 직후 국방부 지휘통제소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격노하고 제2의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 지휘통제소에 있었던 모든 참가 명단 리스트와 그리고 대통령의 언급, 녹취 그리고 계엄 전후의 상황일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은 제출하겠다라고 국회에 보고한 만큼 조속히 정리해서 국방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방첩사의 나승민 정보보안실장이 11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2017년도 기무사 계엄 문건을 기초 자료로 해서 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모의했다라고 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관련되어서 참가자

와 관련된 회의,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또한 과약해서 보고하기로 국방부장관 권한대행이 얘기한 만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하시고 또 김병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박선원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피의자, 현정 질서의 파괴자이자 국현 문란자, 외환 유치죄 피의자, 여적죄 피의자, 각각 어느 것을 갖다 대도 무기징역 대상자 윤석열이 무엇을 근거로 국군통수권자인지 혹시 위원장님께 보고하였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없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되지 위원장한테 지금 물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현재 윤석열은 더 이상 국군통수권자일 수 없다는 점을 위원회의 명의로 여야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건의드리고자 위원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내란이 일어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기 관련된 군지휘관들을 여기에 불러서 확인을 못 하는 이런 국방위원회, 사실 국민께 죄송스러울 때입니다. 지금 내란 행위는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입니까? 우리 국가가 혼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기에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전 요원들을 부른다고 하니까 앞으로 저는 매일 이것을 열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일별백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친위 쿠데타라든가 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국방위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최고위에서도 발언을 했는데 이번 내란에는 실제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만 참가한 걸로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보사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정보사 HID 요원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방위에서는 그런 것들의 의혹을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엄에 참가했던 계엄군의 병사들이나 부사관을 포함한 초급간부들은 행동을 대단히 절제력 있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어떻게든 국민들에 또는 시민들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나름의 노력은 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별백계하고 철저히 수사는 하되 여기에 참가한, 어쩔 수 없이 참가해서 명령에 따랐지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병사들과 초급간부까지는 선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도 그런 것을 잘 밝혀서, 실제 전방에 여기에 참가했던 병사나 부사관 또는 초급간부들이 대단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병사들도 지금 대단히 군의 명예가 실추되어서 불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 성일종 드리세요.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철저히 수사해서 여기에 결심하고 행동한 지휘관들은 일별백계하고 실제 병사들이나 부사관 또는 초급장교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랐고 군인으로서 그랬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나름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선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방위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철저히 밝히되 그러한 면까지도 좀 더 확인하는 국방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군 장병 전체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국방위가 한 측면에서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정말 참담합니다. 또 우리 대통령이 정치적인 과오에 대해서 군을 동원해서 과오를 만회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저는 군인 출신으로 참 경악할 수밖에 없고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하루빨리 이러한 사태가 수습되고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가려지고 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수습이 돼서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급간부나 병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느꼈을 텐데 이에 대한 치유도 우리 군에서 신속히 함께 이루어져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여당 위원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참 많은 자괴감이 듭니다. 하루빨리 이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그나마 국회에서 이번에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그리고 또 억울한 우리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협안질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억울한 군인들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위원장님께서 결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극소수 정치군인들에 의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전군 장병들은 피와 땀으로 국가 안보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이런 군인들에 의해서 이런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군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물론 검찰·경찰 다 나서고 있지만, 공수처까지 나서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역할 할 것은 역할 해야 된

다고 보기엔 몇 마디 나누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일반 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재직 시절에도 않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안보 폰 위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버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란 핵심 주동자이기 때문에. 안보 폰 서버에 대한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제보이기는 하지만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서 정보사가 백령도까지 가서 날리고 그리고 방첩사가 이것을 기획하고 그다음 드론사령부 운용 요원들이 함께 갔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정권 안보에 올인했다라는 지금 정부, 대통령,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요.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아울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의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내일 많은 관계자들이 아마 국회에 오게 될 텐데 빠짐없이 정부 측에서는 다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또 회의 끝난 이후에 제가 차관하고도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내일 많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 또 국민들께서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이 문제의 진실을, 혹시 가려져 있는, 지금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더 물으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의 제약받지 마시고 많이 물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국방위가 거의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매일 이렇게 열려 왔습니다. 내일이야말로 이 사건에 가까이 있었던 관계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더 준비를 잘하셔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 참군인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국민과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훌륭한 우리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의 부피가 분명한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명령이야 떨어지면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도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기호 위원님께서 하급장교들, 임무 수행한 참군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도 한기호 위원님 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가고 또 국가의 명을 받아서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회 차원에서 많은 의견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내일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부승찬 성일종 한기호 허영 황희

○청가 위원(1인)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